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사울과 다윗 성경:사무엘상 26장17-25절

17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 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나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18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19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 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20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21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22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23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도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25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라도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삼상26:17-25)

하나님은 빼어난 왕을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다.

그러나 사울은 빼어난 인물임에 불구하고 그만 실수를 거듭하게 되고, 실수 할 때마다 마무리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다.

다윗도 실수를 하지만, 그는 항상 마무리를 깔끔하게 처리한다. (마지막에 아멘 할 수 있게 하라. 계산할 때 아멘으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곤란하다. 이 사람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다.)

둘 다 빼어난 왕인데,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며 체득할 수 있을까?

먼저 두 사람은 성격에서 차이가 난다.

사울은 감정적 다윗은 정서적. (두 단어의 사용은 비슷)

그러나 오늘은 감정적이라는 단어는 사건의 전말 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거나 감정으로 인해서 완고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사용. 부정적 사용.

정서적이라는 단어는 감정이 작용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겸허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마음 씀씀이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함.

그렇다면, 감정적이라는 단어는 사울에게 어울리고, 정서적이라는 단어는 다윗에게 어울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사울은 대단히 감정적.

그는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대뜸 3000 군사를 일으킴. 그러나 먼길 오느라 너무 지친 나머지 잠부터 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군사행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시금 확인하게 한 다음,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군세를 살핌.

사울이 지쳐 잠든 것을 확인하고 특공대를 조직,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사울의 창을 가져옴. 먼 밭치에서 시위대장을 깨움. 사울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함. 사울은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감. (다윗은 사울의 감정을 자극하지 아니함. 그를 존중히 여김. 사울은 급기야 다윗을 아들이라고 부르며 용서를 구함.)

무슨 사건이든,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정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혜.(아멘의 유무.)

정서적 사건 처리를 위한 지혜

-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피라.
- 기본정보에 민감하라. (감정적이 되면 이것을 소홀히 함.)위험요소, 날짜, 숫자, 이해관계, 심리상태, 법적인 관계, 단어 선택 등.
- 사건의 (영적) 의미를 파악하라.
-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라.
- 내가 입게 될 (유익이나)손해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손해를 최소화 할 것인지 생각하라.
- 내가 감당해야 할 섬김이나, 희생이나, 배려를 생각하라.
-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사울은 원래부터 이렇지 않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부터 감정적이 되고 말았다. 아마 그때 백성들이 사울에게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했을 것이다.

백성들은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에 마음이 있었고, 사울은 당시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튼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다는 백성의 말을, 그리고 욕심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이후 그는 감정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 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백성을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항상 백성들은 설득하였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여러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죽여서는 않된다는 말을 하였다.(대단히 지혜로운 말이며, 신앙고백이며, 자기 보호적인 말이다. 그는 분명히 사울 입장에서 보면 반역의 기미가 있었지만, 교묘하게 이 기운을

비켜 나갔다.)

스트레스 앞에 건강한 다윗

-사울은 스트레스 앞에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다윗을 보내 주셨지만, 사울은 그것마저 스트레스로 받아 들였다.

-스트레스가 없을 순 없지만, 어떤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역이용해야 할 것들이다.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요 기회가 된다.

-대권에 도전하는 다윗으로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미 다윗편이 되었다.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이 먼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아마도 골리앗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불필요한 욕심을 앞세워 가장 훌륭한 장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한다.

-사울은 다윗을 가장 큰 원수처럼 여겼으나, 정작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사 그의 일생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왕노릇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보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받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실 가장 큰 복일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내가 지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로 나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특히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

-항상 모든 일에 감사 제목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감사 제목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도움이 되는 태도들 말씀:
베드로전서3장8-17절

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3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

14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벧전3:8-17)

8. 동정하며; 정서적이 되라는 뜻. (논리적이 되거나, 경찰관이 되거나, 재판관이 되거나,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동행하지는 않더라도, 동정하라는 뜻. 그를 이해하고 선하게 선도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중보하라는 뜻.)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감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9. 복을 이어 받으라; 긍정적인 태도. 복과 저주는 내 앞에 있으며, 항상 내가 선별한다. 항상 긍정적으로 복을 선별하여 취하라.

복과 저주는 운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에발산과 그리심산. 항상 복의 실마리와 저주의 실마리는 같이 있다.)

-밝고 명량한 태도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자. 항상 소망하며 좋은 날을 보기 원하자.

-인생을 비극적으로 이해하지 말자. 비극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인생을 희극적으로 이해하자. 그래야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다행스럽고 희망이 넘치는 일들을 일구어낸다.

13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이란, 열심히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취하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종된 마음. 종된 태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나는 그의 종.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항상 말씀에 깨어 있고, 말씀에 적극적이 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겸손히 은혜를 나누라.

-만족과 감사.